

문학, 그 참을 수 없는 진지함 (수능 언어영역 문학 접근방법) ⑩

: 고전시가에 관하여 - 어이랴 네 어린 늑돌 鬍難하게 맹가는가? ②

written by 『Joshua』

序: 고전시가, 아무리 보아도 어색한 존재.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破: 고전시가가 싫은 이유, 고전시가를 낯설게 느끼는 이유를 찾아라.

急: 고전시가 해석,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결국 고전시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열쇠는 고전시가의 해석, 그 자체입니다. 고전시가의 고어들의 의미를 수월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고전시가 영역의 문제는 매우 손쉽게 풀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고전시가의 해석을 원활하게, 막히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만 잘 안다면 손쉽게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제도 잘 맞출 수 있겠죠. 과연, 고전시가의 해석을 막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지,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이번 글 서두에서 저는 고전시가의 고어(古語)들이 우리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어(現代語)와는 다른 점이 많고, 그런 점에서 고어를 현대어와는 많이 다른, 아예 다른 언어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좋아하지는 않을 과목, 우리와는 다른 언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외국어(영어)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잠시 돌려 봅시다. **이르면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무엇부터 가르치시던가요?** 문장의 5형식 구조? 아니면 가정법 과거/과거완료? 아니면 12시제론? 설마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것부터 배운 학생은 없겠죠. 원어민이 아닌 한 그 누구나 일단 영어를 배울 때에는 처음에 알파벳부터 시작합니다. 'ABCDEFGH~IJKLMNOP~'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죠. 그 다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외웁니다. 'I'는 '나', 'am'은 '~이다', 'student'는 '학생'이라는 것을 배운 후에 'I am a student.'라는 말의 뜻이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은 학생으로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문법, 속독독해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점점 더 어려운 단어를 외워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건 다른 외국어, 가령 일본어를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의 경우 'かきくけこ / カキクケコ'와 같은 히라가나/카타카나를 모두 외우고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단어를 익힌 후에 '私は学生です.'(나는 학생입니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지요. 일본어의 경우 한자의 뜻과 독음까지도 알아야 하니까 오히려 영어보다 외워야만 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 간단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암기입니다.** 영어, 일본어, 그 외의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중국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언어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 글자와 단어 같은 것들은 외워줘야 합니다. 그걸 안 외우면서 '도대체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곤란하지요. 가령, '왜 영어에서는 '온다'라는 말을 'come'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ce라고만 할 수도 있지않아?' 이런 식의 의문을 갖고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단어 중에서는 아마 외울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접두사니 접미사니 어근이니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come'이라는 동사가 '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외워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income, outcome이니 overcome이니 하는 파생형을 쉽게 머리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별 수 없이 외워줘야만 하죠. 몇 번씩 보고 쓰고 읽든지 아니면 그냥 '닥치고' 몇 번씩 반복하든지 해야지 안 외우면 영어 공부 못 합니다.

고전시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시가 해석이 안 된다구요? 간단합니다. 외우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단어 같은 것들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대충 보고 선생님이 해설해 주시는 거 듣고 '아, 이해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았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단어를 몰라 잘 해석을 할 수 없었던 영어 지문을 해설 강의만 듣고 아무런 복습 없이 1주일 후에 다시 보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고전시가 역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고어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점도 많으나, 또한 현대어와는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의미의 이동), 심지어는 서술어에 따라서 사동형이나 피동형으로 바꿀 때에 붙는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조사의 활용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관용적인 문장형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면, 문제지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봤자 고전 시가의 의미를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안 외우면서 외국어 1등급 맞는 학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고어 역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암기를 철저히 해 주어야 무난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무슨 암기가 필요해요, 그런 아니야!'라고 생각할 학생을 위해 고전 시가 작품 하나 제시해 보지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얼우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학생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서동요'라는 향가입니다. 이 설화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얹혀 있는데요, 지면상 다 소개하기는 곤란하나 이 노래가 퍼지는 바람에 신라의 공주였던 선화 공주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공주가 서동이라는 남자를 밤마다 몰래 안으러 간다니, 공주에 관한 제법 소문이 안 좋아질 법 합니다만, 선화 공주가 쫓겨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구절은 바로 '남 몰래 얼우고'이라는 부분입니다. 저 노래가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별 거 없어 보이는 바로 2연이지요. '남 몰래 얼우고'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선화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났을까요? 힌트는 제가 이번 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어른'이라는 말의 어원 정도가 되겠네요. '어른'이라는 말이 '얼우다'라는 고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얼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라고 했었죠. 보세요. 저 부분은 '선화공주님이 남 몰래 서동과 밤마다 얼운다.'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선화공주님이 남 몰래 밤마다 서동하고 같이 잔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신의 딸이 밤마다 남자를 몰래 만나서 동침을 한다는 노래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화가 나지 않을 왕은 없겠죠. 선화공주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¹⁾. 결국

1) 그리고 이 노래를 퍼트린 장본인인 서동은 이상한 노래 때문에 쫓겨나서 고생하고 있었던 선화 공주에게 지극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사로잡아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백제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저 노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얼우다’라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조금 곤란하지요. 물론, 저 뒤의 구절인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라는 부분에서 ‘얼우다’의 의미를 적당히 ‘때려 맞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저 위에 제시한 ‘서동요’ 중에서 ‘얼우다’라는 말 말고 다른 고어가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일부러 ‘얼우고’ 부분만 남기고 모두 현대어로 바꾸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것보다는 더 고어가 많이 섞여 있지요.

이처럼 고전 시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특정한 단어의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도 할사’와 같은 관용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절을 통째로 외워 버리든지, 아니면 자꾸 반복해서 머리에 확실하게 기억이 남게 만들거나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머리 속에 넣어 두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것이지만, 알고 있지 못하면 고전시가 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턱, 하고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전시가를 볼 때마다 ‘아, 또 나왔어!’와 같은 짜증을 내면서 도저히 알지 못하는 단어, 문장들과 씨름하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전시가의 기본은 일정 사항에 대한 ‘암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런 걸 언제 다 외워요? 이상한 한자어도 많고 중국 고사가 인용된 것도 많은데!’라고 이야기할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걱정은 ‘외우기 싫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02년 수능만 하더라도 정말이지 고어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다행히도, 03년 이후부터는 고전시가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고어 형태를 많이 현대어 형태로 바꾸어서 줍니다. 출제자 역시, 고전시가 해석을 달달 외우는 것이 수능시험의 목적인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몇몇 중요한 단어나 구절은 고어 형태로 주어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 현대어 꼴로 주어서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학생들이 알기 힘든 고어, 한자어, 중국의 고사 등은 각주까지 친절하게 달아 주지요. 위에 제시된 작품들에는 모두 각주가 두세 개 정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는 고전시가의 형태는 완전한 고어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작품에 쓰인 고어를 한 번 걸러내어 제시해 주기 때문에 거의 현대어에 가까운 구절도 있지요. 그럼에도 각주가 마찬가지로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모를 법 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구절이라서 굳이 학생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출제자가 현대어로 바꾸거나 각주를 달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각주로 되어 있는 부분, 현대어 꼴로 거의 바뀌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어가 그리 많지 않고, 그 몇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동별곡’만 제대로 보았더라도 웬만큼은 해결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는 그 당시 다른 가사에서 쓰이는 많은 표현이 잘 다듬어져서 적재적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가사 문학을 집약(集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 바로 관동별곡이지요. 괜히 가사 문학의 결정체(結晶體)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다른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동별곡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한 번 본 작품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고전시를 접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수록되어 있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다른 고전시는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 작품도 잘 모르면, 고전시가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관동별곡이 출제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법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제되었지요.

<2010년 6월 평가원 31~35번 지문>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 진혈디 고타 올라 안존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느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사/ 놀거든 쉼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옹(芙蓉)을 고작논 듯 백옥(白玉)을 못것논 듯/ 동명(東溟)을 박춘논 듯 북극(北極)을 괴왓논 듯.
 늣홀시고 망고디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논다/ 어와 너여이고 너 그특니 쏘 잇논가.
 기심디 고타 올라 동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넉넉히 혀여하니,
 봉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몬돌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조연이 되연마논/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B]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늣똥던고.
 노국(魯國) 조본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텃하 엇씨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거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B]

- 정철, 관동별곡 -

앞서 제시했던 작품들과 작년 6월에 출제되었던 관동별곡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형태적으로 훨씬 고어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게다가 통상 고전시가 작품 밑에 * 표시로 달려 있던 ‘각주’도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너무도 많이 틀린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었지요.

<2010학년도 6월 평가원 33번>

(가)~(다)를 바탕으로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였다. (가)~(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영랑재’에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그것들이 이루는 다양한 형상을 확인해 본다.
- ②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오르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양새를 확인해 본다.
- ③ ‘진혈디’에서 ‘녀산’ 쪽을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경치를 즐겨 본다.
- ④ ‘기심디’에서 ‘동향성’ 쪽으로 조망하며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형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기운을 느껴 본다.
- ⑤ ‘혈성루’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 본다.

정답: ③

이 문제는 그 당시 6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대략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문제의 정답이 ③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녀산’은 중국의 산으로 소동파라는 시인이 매우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제법 유명한 산입니다. 관동별

곡의 저 구절은, 화자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금강산이 ‘마치 그 유명한 중국의 여산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아름답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③번에서는 화자가 진짜로 중국에 있는 여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으니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 많은 학생들이 너무도 많이 틀린 33번 문제는 이렇게 매우 세부적인 해석을 물어 보았지요. 그리고 이런 타입의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이지요.

<2010학년도 6월 평가원 34번>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B] :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B] :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B] :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B] :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③

(지면상 다른 작품에 있었던 [A] 부분과 그와 관련된 선지는 생략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답은 쉽게 잡힙니다. ③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의 화자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가 자연 속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②번 선지를 읽으면서 머리 속으로 ‘?’를 띄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성인의 체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쉽게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평상시라면 각주를 주었을 내용인데, 이번에는 각주가 달리지 않았지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는 몇몇 분들이 앞으로 평가원에서 고전 작품의 해석을 상당히 난이도 있게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관동별곡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위에서 ‘관동별곡을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다른 가사 문학을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관동별곡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른 가사들도 해석하는 게 그리 원활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지요.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관동별곡이 출제되면서 고전시가의 해석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 이유는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관동별곡이 ‘국어 (하)’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관동별곡’은 사미인곡, 선상탄 등과 달리 ‘국어 (하)’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문학이나 국어생활, 작문 같은 과목처럼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고 학교마다 가르치는 데에 차이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실업계를 포함하여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출제자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고전시가 작품인 관동별곡이라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월하게 무난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도에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전작품들이 출제되었을 때에 비해 훨씬 해석을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각주도 없고, 말도 더 어렵게 나왔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고전 시가 작품이 출제될 경우 이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전 시가의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전시가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대시가,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모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요 작품이 출제될 경우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는 했습니다. 가령 현대소설에서만 뽑아도 2006년 6월 평가원 46~50번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故 이청준 作, '병신과 머저리'나 2008년 6월 평가원 23~26번으로 구성되었던 박태준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2008년 9월 평가원 40~43번으로 출제되었던 이상의 '날개'도 있고, 2008년 9월 평가원에 등장했던 '구운몽'도 제법 어려운 축에 속했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국어 교과서나 대다수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출제될 경우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은 고전시가 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교과서를 보라! 적어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하) 교과서의 '관동별곡'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 1때 보던 것이라 상태가 그리 깨끗하지는 않습디만, 그래도 올리지요.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小쇼香爐노 大대香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정陽양寺스 眞진歇歇臺다 고터 올라 안존마리.
 廬너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그야 다 뵈느다.
 어와 造造化翁이 현스툰 현스홀샤.
 놀거든 췌디 마나, 섯거든 췌디 마나.
 芙부蓉蓉을 곱갓느 듯 白백玉玉을 못갓느 듯,
 東동溟명을 박츠느 듯 北북極극을 괴왔느 듯.
 눅흘시고 望望高고臺다 외로올샤 穴穴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무스 일을 스로리랴,
 千천萬萬 劫劫 디나스록 구필 줄 모르느다.
 어와 너여이고 너 마터니 췌 잇는가.
 開開心心臺다 고터 올라 衆衆香爐城성 보라보며.
 萬萬 二이千천峰봉을 歷歷歷歷히 현여호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뭍거든 조티 마나, 췌커든 뭍디 마나.
 더 기운 후터 내야 人인傑걸을 몬돌고자.
 形형容容도 그지업고 體體勢勢도 하도 할샤.

天천地地 삼기실 제 自自然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情도 有有情情홀샤.
 毗비廬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뵈니 기 뉘신고.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느야 눅듯던고.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천下하 엇씨호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관동별곡’에서 해당 문제에 출제된 부분을 스캔한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실린 것과 한자가 병기되었는지만을 제외한다면 고어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대어로 바꾸어 주거나 고어 형태를 살려서 수록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출제자들이 국어 교과서를 그대로 참고했다는 것은 문제에서도 드러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린 33번 문제와 34번 선지를 풀기 위한 정보들이 국어 교과서에 실린 ‘관동별곡’ 해당 부분에 각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 녀산 진면목: 여산(廬山)의 참다운 모양. ‘여산’은 중국 장시 성(江西省)에 있는, 폭포와 온천으로 유명한 산 이름. 여산은 곳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로, 소동파가 여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에서 유래한 표현.

• 노국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니와. ‘맹자(孟子)’에 ‘공자가 동산에 올라 보고 노국이 좁다 하고, 태산에 올라 보고 천하가 좁다 하였다.’는 말이 있음.

어떤가요? 국어 (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각주가 바로 33번 문제와 34번 문제를 푸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 (하) 교과서 p. 231 ~ 233)

결국에는, 이러한 경향 분석을 통해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몇몇 중요한 가사의 해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모든 고등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보았을 관동별곡과 같은 작품들은 웬만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고전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학생들을 위해서, 평가원은 그러한 작품들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씩 반복되어서 출제하는 고전시가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즉, 고전작품은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한 몇몇 작품이 계속 반복해서 보기→선지→지문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과 ‘사미인곡’, ‘속미인곡’, 박인로의 ‘선상탄’과 ‘누항사’ 등이 그런 작품들이지요. 관동별곡만 하더라도 일단 2005년 9월 평가원 47번에 선지 ②번에 등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바로 이번 시험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봉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돈돌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그 외에도 송순의 ‘면앙정가’는 2003학년도 수능 28~31번/2007년 6월 평가원 37~42번 지문에 등장하며, 정극인의 ‘상춘곡’은 2002학년도 수능 37~41번 지문/2005년 9월 평가원 47번 선지 ③번/2008년 9월 평가원 20~24번 지문에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박인로의 ‘누항사’는 2009년 6월 평가원 46~50번에 출제되었지만 그 전에 2005년 9월 평가원 47번 선지 ①번에 이미 맛보기로 일부가 실린 적이 있고. 그리고 ‘선상탄’의 경우는 2005년 12월 예비평가에서 문제로 출제

된 이후에 종종 선지에서 등장하고 있지요. 정철의 다른 작품인 ‘사미인곡’은 1998년 수능에 출제된 이후에 2005년 9월 평가원 47번 선지 ⑤번에 인용되었고 그 후 2006년 9월 평가원 15~21번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속미인곡’의 경우 이상하게 수능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결국 2006학년도 수능에 등장했지요. 이러한 경향은 바로 작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지되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송순의 ‘면앙정가’가 반복해서 출제된 것이 그러합니다. 제가 굵게 표시한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작품들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아무 고전 시가나 던져 주고 학생들에게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 작품들 위주로 하여 문제를 구성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 출제될 경우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설령 학생들 대다수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더라도 절대 출제자의 뜻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했었던 작품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이런 미친 문제를 누가 맞춰!’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고전시가에서는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하지요. 게다가 평가원에서는 그 중요한 작품들을 직접 제시해주고, 해당 작품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현대어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는데 말이지요. 제가 이번 문단 제목에서 ‘해석을 공부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변명이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結: 고전시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몇몇 작품의 해석은 숙지해라.

출제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고어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는 것이 수능시험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선조들의 소중한 유산인, 가치 있는 고전 문학작품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기본적인 것,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문제를 통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나 내용을 출제할 때에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작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중요 작품들은 학교 수업 시간 때에 접했기 때문에 일반 작품들에 비해 더 잘 알 것이라고 출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 나올 경우 생소한 작품이 나올 때보다 훨씬 세밀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물어봐서 문제의 난이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관동별곡’의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이지요. 즉, 바로 교과서에 실린 중요한 작품, 기본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 두라는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에는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바로 작년(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이전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출제되었던 ‘송순’의 ‘면앙정가’가 출제 작품으로 나온 것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